

여기를 누르시면 인쇄가 시작됩니다.

empas메일 박영숙 (urionni@empal.com)

보낸 사람 울브라이트 <jota83@korea.com>
받는 사람 강경희 <angela@womenfund.or.kr>
받은 날짜 2005년 07월 09일 01시 54분
편지 제목 [RE] 한국여성재단, 강경희입니다.

강경희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이제서야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책임은 크지만, 권한을 가질 수 없었던 시기와
책임만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박영숙이사장님은
제가 어릴 적, 이사장님이 평민당 부총재하던 시절에
이상덕 보좌관의 소개로 잠깐 뵈었던 적이 있지요.
한달 정도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물론, 그 분은 기억하지 못하지요.

사실 처음 만났던 여성정치인이었고
그 때나 지금이나 차분하면서도 매섭고 깊이있는 열정이 느껴지던
분이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몇번 뵈었을 때마다
이사장님이 처음에는 기대와 바램이 컸지만
점점 가면서 실망과 비판이 크구나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명숙의원님과 박영숙이사장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특히, 영부인의 적극적활동과 행보에 대한 불만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장님의 생각과 뜻, 바램도
많이 전달해 주시고 조언도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는 어림 짐작하고 있으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영부인의 역할이란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처럼 헌법적 규정이 있는것이 아니고
영부인 개개인의 조건과 능력, 취향에 따라
내조적, 활동적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명숙,박영숙이사장님 두분께서
이희호여사님과 권양숙여사님을 지나치게 비교하여 평하는 것은
제겐 사실 안타까움입니다....

잘못하면 말이 길어지겠군요... 더 많은 이야기는
나중에 만날 기회를 마련했을 때 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이제서야
저의 입장과 방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언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이사장님을 뵈면, 그리고 한국여성재단을 생각하면
늘 마음에 빛을 지고 있는 듯 죄송스럽고,, 어떻게든
힘을 보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강경희 사무총장님은
늘 건강하고 밝고 낙관적인 사람이어서 활력을 느끼게 합니다.
이사장님께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인쇄가 시작됩니다.

empas메일 박영숙 (urionni@empal.com)

보낸 사람	강안젤라 <angelakh@hanmail.net>
받는 사람	urionni@empal.com
받은 날짜	2005년 07월 10일 09시 46분
첨부 파일	attach_01.eml
편지 제목	[FW][RE] 한국여성재단, 강경희입니다.

이사장님,
제2부속실 이은희 실장에게서 온 이메일을 전달합니다.

제2부속실장 되었다는 기사 읽고 재단에서는 축전을 보냈고,
저는 따로 이메일을 보냈더니,
제 이메일에 대한 답을 길게 보내왔네요.

그 동안 국장에 머물면서 제대로 일하기 힘들었었나봅니다.
의지가 넘치는 것 같고,
이렇게 무언가 해보겠다는 각오가 섰을 때,
좋은 사람들의 조언이 많아야 하는데... 싶습니다.

권여사님에 대한 이희호여사님과의 비교됨이 많이 힘이 들었나봐요.
기회가 된다면,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탕비어 있으면
남에게 아름답고
내게 고요합니다.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안젤라 홈페이지

안젤라 싸이미니홈피

"우리 인터넷, Daum" <http://www.daum.net> 『평생쓰는 무료 한메일넷』



내 주민번호의 도용사실이 있는지 **go**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내 카페 친구들 한방에 만나러~
커피에 매일 출석하면, Daum캐쉬 1,000만원

Copyright © 2000-2005 (주)엠파스